

광주는 경선 후폭풍... 전남은 선거구 혼란

민주 광산갑 탈락 후보 "이석형 불법선거운동" 재심 요청 전남, 선거구 조정 4곳 재경선 여부·현역 교통정리 촉탁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을 속속 결정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의 경선 불복이 이어지고, 전남 지역 선거구는 대폭 개편이 예고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은 흠어진 당심을 결집하고, 변화된 선거구에 따른 유권자 및 후보들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의 숙제를 안게 됐다.

4일 오후 8시 현재,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 전체 18개 선거구 중 11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광주 8개 선거구 중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지역구는 동남을 이병훈, 북구갑 조오섭, 북구를 이형석, 광산갑 이석형 후보 등 4곳이다. 전남지역은 10개 선거구 중 나주·화순 신정훈, 영암·무안·신안 서삼

석,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목포 김원이, 여수를 김희재,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후보 등 7곳이다. 하지만 초반부터 경선이 과열돼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선거구에서는 결과가 불복하는 후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광주 광산갑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이용민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전남 민주당은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이석형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 이석형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8건의 불탈범이 접수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화 선거운동 여부를 밝히기 위해 후원회 사무소의 전화 통화 등

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면서 "경선 과정에 불·탈범 행위가 잦아 경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도 아무런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경선을 마무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그동안 한 예비후보의 신천지 교회 방문 논란에 재경선까지 검토했던 북구를 경선 발표 결과, 이석형 후보가 민주당 확정되자 상대 후보인 진전속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 예비후보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절차에는 따르겠지만, 결정은 승복할 수 없다"면서 "재심신청을 통해 이번 당내경선의 불공정성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북구를 경선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후보의 신천지 방문설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발표를 4일로 미뤘었다.

민주당의 전남지역 후보의 운과도 드러

나고 있지만 전체 선거구 10곳 중 6곳이 변경되는 선거구 확정안은 또 다른 변수다. 선거구 확정안이 확정되면 현역인 서삼석 의원의 영암·무안·신안은 쪼개져 인근 선거구로 합쳐지고, 이개호 의원의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담양이 광양·곡성·구례로 건너가고 나머지는 서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과 합쳐진다.

두 현역 국회의원 간 교통정리뿐 아니라 새로게 합쳐진 선거구에서의 재경선 여부도 관심사다. 아직 경선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순천은 2곳으로 선거구가 나뉘게 된 것도 변수다. 현재 순천은 4명의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어 이들의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구에 따른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묶이게 된 전남지역 4곳의 선거구에서도 재경선을 할지 여부 등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작을 이수진 vs 나경원...전 판사 대결

(민주당) (통합당)

이낙연 vs 황교안, 고민정 vs 오세훈...수도권 격전지 대진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의 후보를 일부 확정하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동작을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구다. 이에 따라 여성 판사 출신 후보 간 대결이 성사됐다. 사법시험 34회 출신인 나 의원과 40회 출신인 이 전 판사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맞붙는 종로, 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격돌하는 광진구에 이어 동작을까지 수도권 최대 격전지 3곳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종로, 광진을, 동작을 등 '삼각 핵심지역'과 함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곳곳에서 '빅매치'도 예상된다.

강남갑 후보로는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과 통합당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가 확정됐다. 강남을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통합당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사장이 맞붙는다. 서초갑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정근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전략공천을 받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간 '여성 인제 대결'이 벌어진다. 송파병에서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과 '옛 안철수계'로 꼽히는 통합당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승부를 겨룬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 간 대결이 벌어지는 지역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전략공천한 구로구에 통합당은 김용태 의원을 투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선거구획정, 선거법 취지 훼손...재의해달라"

교섭단체 3당 기자회견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 3일 선관위 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획정위에 기준안을 수정해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 과연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 선관위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터우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행안위는 이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획정안이 무리하게 짜였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한 차

례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된다면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되고 선거구 획정이 1주일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획정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17일 전인) 16일까지"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 비례대표 후보 48명 압축

최혜영·김홍걸 등...10~11일 국민 심사·14일 중앙위 투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 128명에 대해 면접과 심사를 한 결과, 후보를 일반 경쟁분야 40명·제한경쟁분야 8명으로 압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 중 20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제한 경쟁분야(1·2·9·10번)는 순번별로 1명을 중앙위원회 투표로 정하고,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는 국민공천심사단 및 중앙위 투표로 결정한다.

제한경쟁분야 가운데 비례대표 1번(여성장애인)의 경우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 김효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재

별분야 전문위원, 홍서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가 겨룬다. 2번(외교·안보)의 경우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가 맞붙는다. 9번(취약지역)을 놓고는 남철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재리 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여성위원장, 정종숙 대구여성회 감사가 도전한다. 10번(사무직 당직자)의 경우 후보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등이 일반경쟁분야 후보군에 들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갑론을박

민주, 공식화 보류... 녹색당·정의당 내부 의견 분분

진보·개혁정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의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정당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비례정당' 창당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녹색당은 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당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의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물밑 토론이 치열하게 벌

어지고 있다. 일단 심상정 대표는 연합정당 참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답습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연합정당과 관련한 당내 논의의 '공식화'를 보류하면서 물밑에서 계속 상황을 저울질 중이다. 당 핵심 인사들은 연합정당 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소수정당·시민사회·당내 여론의 추이 등을 주시하며 일단 공개적으로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의체 결정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 2단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 수강료: 22만원(3개월)
-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